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 거룩한 희망 안에서 새해를 시작합니다(루카 2, 16-21)

## 새 회장에 심상은 목사 OC교협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는 지난 15일 풀러턴 은혜한인교회(담임 목사 한기홍)에서 제31차 정기 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으로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이다.

2022년 일 년 동안 OC기독교교회협의회를 이끌어 갈 심 차기 회장은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뒤를 이어 오렌지카운티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며 "순종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주안에서 각 단체들과 연합해서 한 팀이 되어 열심히 섬길 것을 다짐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OC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차기 이사장으로 신원규 목사(좋은마음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담임 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의 '은혜이슬 특별 새벽부흥회' 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란 주제로 오는 2022년 1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열린다. 시간은 월요일~금요일은 새벽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이다.

첫날인 1월 3일은 한기홍 담임 목사, 4일은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 담임), 5일은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 6일은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산교회 담임), 7일은 권 준 목사(사예를 형제교회 담임), 8일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다.

한편 장순직 목사(문막드림교회)를 초청하여 열리는 신년축복성회는 2022년 1월 20일(목)부터 23일(주일)까지 열린다.

문의: (714) 446-6200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새해 첫날과 같은 새로운 시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변화가 없는 고정된 상태만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지루하고 숨이 막혀서 견디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에 대한 열정이 바로 희망입니다. 로마시대의 시인 오비디우스(Ovidius)는 "인간 영혼은 새로움을 향해 기운다" 고 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동물은 새로운 환경보다 이미 살던 익숙한 환경을 더 좋아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고 갈구하는 에너지, 곧 새로움에 대한 열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열정이 바로 희망이고, 이 희망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와 새로움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첫날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겪는 많은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리라는 복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된 희망을 지니신 분



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희망이 있었기에 당신 아들에 대한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사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모 마리아는 분명 인내를 통한 희망의 징표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성모님처럼 복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앞날을 믿고 살아가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에 갖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를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머물게 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건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부질없는 욕심 앞에서 허둥대지 않으며, 언제나 스스로 자신에게 정직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갑시다. 희망과 믿음이 사라지면 바로 두려움과 절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는 고통스러운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희망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이고, 그것은 악(惡)에서 나온 절망인

것입니다. 절망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어로 절망(絶望)은 바라보기(望)를 끊는 것(絶)을 가리킵니다. 바라봄을 끊는 것, 곧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한 희망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절망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당신 삶에서 겪어야 하는 온갖 장애와 고난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 보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에 그 분께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해 첫날 성모 마리아께서 가지셨던 거룩한 희망 안에서 올 한해도 새롭게 출발합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성모님의 복된 희망 안에서 새해를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 최경환 신부 -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 숨은그림찾기 정답